

2012년 가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 믿는 이들을 향한 그분의 어떠하심

메시지 13

안식

성경: 창 1:26, 31-2:2, 출 31:12-17, 마 11:28-30

- I. 골로새서 2 장 16 절부터 17 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실재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완성과 안식과 평온함과 완전한 만족이시다—사 30:15 상.
- II.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에 대한 긴 기록 후에 출애굽기 31 장 12 절부터 17 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한 계명을 반복하는 것이 있다.
 - A.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대한 분부에 뒤이어 안식일에 관한 삽입부가 있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건축자들과 일꾼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어떻게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음을 가리킨다.
 - B.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만을 알고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신성한 원칙과 반대로 행하는 것이다.
 1. 하나님께서 제 칠일에 안식하신 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마치시고 만족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분의 원수인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해 그분의 권위가 행사되려고 했다.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안식하실 수 있다—창 1:26, 31-2:2.
 2. 나중에, 제 칠일은 안식일로 기념되었다(출 20:8-11). 하나님께 제 칠일은 사람에게 첫째날이었다.
 3.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누림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사람은 창조된 후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갔다.
 4. 사람이 창조된 것은 먼저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위해서였다(비교 마 11:28-30).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막 2:27).
 - C. 출애굽기 31 장 17 절은 “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표시이다. 이는 여호와가 육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1. 안식일은 하나님께 안식이었을 뿐 아니라 그분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2.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의 일을 완성하신 후에 안식하셨다. 그분께서 손으로 만드신 것들, 곧 하늘과 땅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 특히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 매우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다(창 1:31).
 3.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상쾌하게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그분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었다—창 1:26, 2:7, 비교 요 4:31-34.
 4.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총각'이셨다(비교 창 2:18, 22). 그분은 사람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아내가 되기 위해 그분을 표현하기 원하셨다(고후 11:2, 엡 5:25). 영원 미래에 하나님은 한 아내, 곧 어린양의 아내라고 불릴 새 예루살렘을 갖게 되실 것이다(계 21:9-10).

5. 사람은 하나님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상쾌하게 하는 음료와 같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마치고 안식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사람을 그분의 동반자로 가지셨다.
 6. 하나님께 제 칠일은 안식과 상쾌하게 하는 날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반자인 사람에게는 안식과 상쾌하게 하는 날이 첫째 날이었다. 사람의 첫째 날은 누림의 날이었다.
- D. 우리가 누림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도록 요청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신성한 원칙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누림을 가진 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갖는 법과,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법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법이나 그분의 신성한 일 안에서 그분과 하나되는 법도 모르게 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 안에서 그분이 성취하신 것을 누린다.
 2. 오순절날에 제자들은 그 영으로 충만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주님에 대한 누림으로 충만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그 영으로 충만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그들이 포도주에 취한 것으로 생각했다—행 2:4 상, 12-13.
 3. 사실상 그들은 하늘에 속한 포도주에 대한 누림으로 충만되었다. 그들이 오직 이러한 누림으로 충만된 이후에야 하나님과 하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오순절은 여덟 번째 주의 첫날이었다. 그러므로 오순절과 관련해서 우리는 첫째 날의 원칙을 본다.
 4. 하나님께는 일하시고 안식하시는 것에 속한 문제이다. 사람에게는 안식하고 일하는 것에 속한 문제이다.
- E. 성막을 건축하는 일로 예표된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에게는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과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실 것이다.
1.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누림과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신 그분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지녀야 한다.
 2.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드로는 하나님으로 충만되고, 그 영으로 충만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시를 가졌고 그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었다—행 2:14.
 3.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으로 충만되었다는 표시를 지녀야 하고 그 후에 우리는 우리를 채우시는 바로 그분과 함께 일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만 하나님과 함께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들로서 일한다.
 4.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에너지이시며 말씀을 공급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것이시라는 표시를 항상 지니기를 추구해야 한다—고후 13:3, 행 6:4.
- F.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으로 충만되고 난 후에야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의 하나 안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확증해 드리는 영원한 약속 혹은 언약이다—출 31:16.
1.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을 받아들이거나 그분을 누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비교. 고전 12:13, 요 6:57.
 2.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말할 때 그는 내적으로 예수님께 참여하며 그분을 마시며 먹고 있었다.
- G. 안식일은 거룩함에 속한 문제이기도 하다(출 31:13).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일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범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성별되고 분별되며 육체적이고 천연적인 모든 것을 대체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적셔진다.

- H.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누림이 없이, 주님과 하나됨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없이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한 봉사는 영적인 죽음과 몸 안에 있는 교통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출 31:14-15).
- I. 하나님의 거처와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를 한 가지 항목, 곧 안식과 주님을 신선케 하는 것이 있는 안식일로 인도한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성막 안에 있고 성막은 우리를 안식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께서 하신 것에 대한 누림으로 이끈다!
- J. 성막과 그 모든 가구들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누림으로 시작해야 하고 휴지기에는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는 것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누림과 그분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내적인 안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III. “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마 11:28-30.

- A. 여기서 수고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과 종교적인 규정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수고를 가리킬 뿐 아니라,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분투하는 수고를 가리킨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 B. 주님은 아버지의 길을 인정하시고 신성한 경륜을 선언하시면서 아버지를 높이 찬양한 후에(마 11:25-27), 이런 사람들을 그분께 나아와 안식하라고 부르셨다.
- C. 안식은 율법이나 종교 혹은 어떤 일이나 의무로 말미암은 수고와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을 가리킨다.
- D.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이나 종교의 어떤 의무에 규제되거나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며, 아버지의 뜻에 제한받는 것이다.
- E. 주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다만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셨다(요 4:34, 5:30, 6:38).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다(마 26:39, 42).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 F. 온유하다 혹은 온화하다는 것은 반대에 저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겸허하다는 것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모든 반대 가운데서도 온유하셨으며, 모든 배척 가운데서도 마음이 겸허하셨다.
- G.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으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무엇인가를 얻으시기를 기대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안식이 있으셨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만족하셨다.
- H.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움으로써 우리가 얻는 안식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만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안식이다.
 - I.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다. 그런 멍에는 편하여 결코 괴롭지 않으며, 그런 짐은 가벼워 결코 무겁지 않다.
 - J. 헬라어로는 '용도에 꼭 알맞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렵고, 엄하고, 날카롭고, 괴롭고'와 대조되는 '좋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편하고, 유쾌하고'를 의미한다.
- K. 하나님의 경륜의 멍에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누림이다.

주님을 누림

사 57:20—각주 1, 렘 2:13

사 30:15 상

시 43:4 상, 16:11, 48:2—각주 1, 46:4, 51:12, 36:8-9

느 8:10

사 12:2-6, 51:11, 56:7

빌 1:4, 25, 2:17-18, 28-29, 3:1, 4:1, 4, 6-7

렘 15:16, 요 8:31, 15:7, 겔 3:1-3

요일 1:4

요 15:11, 3:29-30, 17:13, 14:21, 23

시 133

신 12:7, 18, 16:11, 14

아 1:1-4, 4:10, 2:4-5, 8-9, 3:9-10

살전 5:16-18

요 4:34, 5:17

히 1:9

계 22:1, 14

겔 47:1

벧전 1:8

요 21:15-17

마 25:21, 23

눅 15:7, 10

고후 1:24

빌 2:2, 1:25

롬 14:17

갈 5:22

잠 15:13 상, 17:22

요 14:6 상, 20:22, 4:10, 7:38-39, 6:35, 57, 8:12, 15:5, 7